

# 테니스 알렉산더의 《색의 번득임》 (A Splash of Color, 1990/2011)에 나타난 색의 표현 기법 연구

민 효 인\* · 유 승 지\*\*

##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알렉산더의 피아노 작품 개요
- III. 색과 음악이 결합된 공감각에 대한 예술가들의 인식 비교
- IV. 《색의 번득임》에 나타난 색의 표현기법
  - 1. 색과 다양한 소재를 결합한 표제의 사용
  - 2. 색의 정서 표현을 위해 사용된 특징적 작곡 기법
    - 1) 음계의 선별적 사용
    - 2) 낭만주의 및 재즈를 포함한 현대적 화성 어휘의 적용
    - 3) 색과 소재의 특징이 반영된 음악 요소의 선택
      - (1) 박자와 리듬
      - (2) 아티큘레이션
      - (3) 빠르기 및 나타냄말
      - (4) 음역과 셈여림
- V.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피아노교수학과 박사과정

\*\* 한세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

- 논문 접수일 (7월 20일), 심사일(7월 25일), 게재확정일(8월 4일)

## 개 요

데니스 알렉산더(Dennis Alexander, 1947-)의 《색의 번득임》(A Splash of Color, 1999/2011)은 학생들의 공감각적 심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색과 음악을 결합하여 작곡된 작품이다. 중급 난이도로 작곡된 총 3권에는 표제에서 제시된 색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18개의 피아노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색의 정서를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적용된 알렉산더의 특징적 작곡 기법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작품 분석과 이메일을 이용한 작곡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알렉산더는 18개의 작품에서 11가지의 색(분홍,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갈색, 흰색, 검정, 회색, 금색)을 사용하였고, 색 고유의 이름뿐 아니라 색의 정서와 어울리는 소재를 자연, 음식, 금속, 음악 장르 등에서 가져와 표제를 만든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1) 다양한 음계(장·단조뿐 아니라 선법, 운음음계, 반음계, 복조, 무조, 블루스 음계)의 선별적 사용, 2) 낭만주의 및 재즈를 포함한 현대적 화성 어휘의 적용, 3) 색과 소재의 특징이 반영된 음악 요소(박자, 리듬, 아티큘레이션, 빠르기, 나타냄말, 음역과 셈여림)의 선택을 통해 각 곡의 표제에서 제시된 색이 가진 특징적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 작품을 연주하는 이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제공될 것이고, 음악 외적 요소를 활용한 교육용 작품 창작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I. 들어가는 말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화가에게 시는 그림이 되고, 작곡가는 그림을 소리로 바꾼다. 모든 예술 형식의 미학적 과정은 모두 동일하다. 오직 재료만 다를 뿐이다.”<sup>1)</sup>라고 하였는데, 예술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음악, 미술, 문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sup>2)</sup> 그 예를 살펴보면 미술가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저서 『점·선·면』(*Punkt und Linie zu Fläche*, 1927)을 통해 음악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냈으며,<sup>3)</sup> 클레(Paul Klee, 1879-1940)는 《파르나소스 산으로》(*Ad Parnassum*, 1932)에서 다성 음악의 요소들을 회화에 접목하였고,<sup>4)</sup>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 역시 《브로드웨이 부기우기》(*Broadway Boogie Woogie*, 1942-1943)와 《빅토리 부기우기》(*Victory Boogie Woogie*, 1942-1944)에서 재즈의 한 장르인 부기우기에서 나타나는 리듬을 형상화하여 그만의 특징적인 화풍을 창조하였다.<sup>5)</sup>

한편 음악가들도 청각 외에 다른 감각을 자극하는 작품 창작을 오랫동안 해왔다. 빛, 그림자, 텍스처를 통해 순간적인 색채를 표현하는 인상주의 화풍의 시각적 영감은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의 《스케치북에서》(*D'un cahier d'esquisses*, 1903-1904), 《판화》(*Estampes*,

1) Paul Roberts, *Images: The Piano Music of Claude Debussy* (Portland, Oregon: Amadeus Press, 1996), 3에서 재인용.

2) Yining Jenny Jiang, “Connection between Visual Arts and Music: The Painting and Music of I-Uen Wang Hwang,” (D.M.A. Diss., James Madison University, 2017), 1.

3)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차봉희 역, 『점·선·면』 (경기도: 열화당, 2021).

4) 윤익영, “음악에서 영감을 얻는 현대 미술가들 연구,” 『현대미술학 논문집』 16/2 (2012), 133.

5) 김한술, “피트몬드리안 작품에서 표현되는 재즈의 미학적 영향,” 『문화와 융합』 40/4 (2018), 39.

1903), 《영상》(Images, 1901-1907) 등의 작품에서 제목으로 표현되었다.<sup>6)</sup> 그리고 스크리아빈(Alexander Scriabin, 1872-1915)은 《프로메테우스, 불의 시》(Prometheus, the Poem of Fire, 1910)에서 색채 조명 오르간을 사용하여 음악과 대응한 색이 연주회장을 물들이게 만드는 시도를 하였다.<sup>7)</sup>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도 “음을 통해 색채를 본다.”<sup>8)</sup>라고 말할 정도로 작곡하는 데 있어 색이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작품 《새의 카탈로그》(Catalogue d'oiseaux, 1956-1958) 악보를 보면 ‘보라(violet)’, ‘빨강(rouge)’, ‘오렌지(orange)’ 등 특정 색을 지칭하는 단어가 발견된다.<sup>9)</sup> 위에서 열거된 작곡가들은 특정 이미지나 색을 상상하고 그에 어울리는 악상을 악보에 써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미국의 대표적 피아노 교육용 작품 작곡가인 알렉산더(Dennis Alexander, 1947-)도 3권으로 이루어진 《색의 번들임》(A Splash of Color, 1990/2011)에서 이전의 작곡가들이 시도한 색과 음악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색을 통한 상상력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교사는 언제나 중, 고등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곡을 찾는다. 이 나이 또래의 학생들은 상상하며 배우는 것을 즐기고, 나는 그 학생들의 상상력을 새로운 높이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색을 활용하였다. 어떤 학생들은 이 작품을 연주하면서 다른 색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것은 긍정적인 일 뿐 아니라 장려하는 바이다. 중요한 것은 음악을 통해 반응

6) Frank Eugene Kirby, *Music for Piano: A Short History* (Pompton Plains, New Jersey: Amadeus Press, LLC, 1995), 278-280.

7) 도널드 제이 그라우트 · 클로드 브이 팔리스카 · 제이 피터 버크홀더(Donald J. Grout, Claude V. Palisca, and J. Peter Burkholder)/민은기 외 역, 『그라우트의 서양 음악사』 (서울: 이앤비플러스, 2013), 241.

8) 김길호·백정기, 『사운드 컬러 하모니즘』 (서울: ㈜임프레스, 1997), 39.

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1580](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1580) [2023. 7. 7 접속].

을 끌어내는 것이다.<sup>10)</sup>

위의 글을 통해 알렉산더는 음악 외적 요소인 ‘색’을 끌어들이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감각적 심상을 불러일으키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이 앞서 소개한 작곡가들의 작품과 다른 것은 오랫동안의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중급 수준의 학생들이 흥미롭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작곡된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색과 음악을 결합하여 작곡된 교육용 피아노 작품 중에는 국내에서 이미 연구가 이루어진 스타러(Robert Starer, 1924-2001)의 《색상 스케치》(Sketches in Color, 1963/1973)가 있다.<sup>11)</sup> 스타러가 이 작품에서 20세기 현대적 작곡 기법에 초점을 두고 작곡을 하였다면 알렉산더는 《색의 번득임》에서 낭만주의 및 재즈적 화성 어휘를 조합하여 보다 친근한 소리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작품을 작곡하였다.

알렉산더는 국내 교육 현장에서 피아노 교육용 교재인 《프리미어 피아노 코스》(Premier Piano Course)의 공동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외 선행 연구 자료를 검색해본 결과 아직 그의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가 이 교재뿐만 아니라 교육용으로 400개 이상의 피아노 작품과 음원을 남긴 피아니스트이자 교수학자 그리고 작곡가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작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국내 피아노 교육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존하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인터뷰를 통해서도 풀 수 있어, 앞으로 그의 작품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작곡가의 생각과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연구

10) Dennis Alexander, A Splash of Color Vol. 1 (Van Nuys, California: Alfred Music, 1990), preface.

11) Gao Song, “Robert Starer 중급 피아노 작품 Sketches in Color 분석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이연경, “로버트 스타러의 교육용 피아노 작품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17/2 (2016), 165-189.

의 진행도 가능하리라 여겨졌다.

이에 본 연구는 작품 분석과 작곡가와의 이메일(email)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고,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색의 번득임》 제1, 2, 3권에 수록된 18곡을 분석하여 표제에서 나타나는 색의 정서가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파악하여 상상력을 더해 연주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북미를 대표하는 피아노 교육용 작품 작곡가인 알렉산더의 음악어법을 발견하여 음악 외적 요소를 활용한 교육용 작품 창작 아이디어를 탐색한다.

## II. 알렉산더의 피아노 작품 개요

알렉산더의 작품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콩쿠르나 연주회에서 즐겨 연주되는 레퍼토리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sup>12)</sup> 그는 24년 동안 몬태나 대학교(the University of Montana)에서 피아노와 피아노교수학 담당 교수로 재직하다 1996년 은퇴한 후 현재까지도 뉴멕시코(New Mexico)주 앨버커키(Albuquerque)에 거주하며 활발한 작곡 및 강의 투어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2015년에는 전미 피아노 페다고지 학술대회(National Conference on Keyboard Pedagogy)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피아노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공로상(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하기도 하였다.<sup>13)</sup>

알렉산더의 수많은 피아노 작품 중 단편적 소품을 제외하고 《색의 번득임》과 같이 모음곡 형태로 되어 있는 작품은 총 38개이며,<sup>14)</sup> 초급 초

12) Cathy Albergo and Reid Alexander, *Piano Repertoire Guide: Intermediate and Advanced Literature* 5<sup>th</sup> Edition (Champagne, Illinois: Stipes Publishing L.L.C., 2011), 118.

13) [https://www.dennisalexander.com/da\\_full\\_bio.html](https://www.dennisalexander.com/da_full_bio.html) [2023. 7. 13 접속].

14) 38개의 작품은 <부록 1>에 소개되어 있으며 알프레드 출판사 홈페이지와 할 레너드

기부터 고급 초기까지 7단계(early elementary, elementary, late elementary, early intermediate, intermediate, late intermediate, early advanced)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38개의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작곡가 자신이 직접 연주해서 음원도 남긴 《24개의 캐릭터 전주곡》(24 Character Preludes, 2001)이다. 중급 후기부터 고급 초기 수준의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쇼팽(Frédéric François Chopin, 1810-1849)이 《24 전주곡》(24 Preludes, Op. 28, 1839)에서 적용한 조성 배열의 순서를 좇아 모든 장조 및 단조 조성을 다룬 24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부터 거슈윈(George Gershwin, 1898-1937)에 이르는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이 수록되어 있다.<sup>15)</sup> 알렉산더는 이 작품을 작곡할 때 각 전주곡이 하나 이상의 학습 주제(pianistic problems)를 탐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고 밝혔으며,<sup>16)</sup> 모든 작품이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표제를 가진 성격 소품(character pie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그의 작품 중 대부분은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작곡되어 특정 음악 개념이나 테크닉을 학습하기에 좋고, 각 곡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는 표제들이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또한 그가 작곡한 많은 작품에서 낭만적 색채를 띠는 화성과 재즈 화성 어휘들이 적용되어 그 만의 독특한 음색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재즈 스타일로》(Especially in Jazzy Style, 2010) 제1, 2, 3권과 《특별히, 낭만 스타일로》(Especially in Romantic Style, 2009) 제1, 2, 3

---

홈페이지를 참고로 작성되었다. <https://www.alfred.com/search/products/?query=Dennis+Alexander> [2023. 7. 13 접속]. <https://www.halleonard.com/search/search.action?keywords=Dennis+Alexander&dt=item#products> [2023. 7. 13 접속].

15) Albergo and Alexander, *Piano Repertoire Guide: Intermediate and Advanced Literature* 5<sup>th</sup> Edition, 118.

16) Dennis Alexander, *24 Character Preludes* (Van Nuys, California: Alfred Music, 2001), preface.

권은 그의 낭만주의 및 재즈적 화성 어휘를 총망라해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알렉산더의 작품 목록을 보면 이 작품집들처럼 같은 제목으로 최대 6권까지 시리즈로 작품집을 구성한 것도 있다. 특히 알렉산더는 ‘특별히’(especially)를 작품명에 포함한 제목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특별히, 성인들을 위하여》(Especially for Adults, 2007), 《특별히, 소년들을 위하여》(Especially for Boys, 1998), 《특별히, 소녀들을 위하여》(Especially for Girls, 1998),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위하여》(Especially for Christmas, 2008) 등에서 확인된다. 그 외에도 《심플리 소나티나》(Simply Sonatinas, 1993), 《스타일 학습을 위한 열쇠》(Keys to Stylistic Mastery, 2003),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기》(Finger Paintings, 2000), 《동물 마법》(Animal Magic, 1994) 등 어떤 종류의 악곡이 수록되어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작품명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 발견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소재의 선택 및 창의적 아이디어들은 《색의 번득임》에서 색과 음악이 결합되어 학생들의 공감각을 자극하는 제목과 알렉산더 특유의 음악적 특성을 드러내면서 펼쳐진다.

### III. 색과 음악이 결합된 공감각에 대한 예술가들의 인식 비교

‘공감각(synesthesia)’이란 인식 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감각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스어 ‘syn’의 ‘함께’, ‘aisthesis’의 ‘지각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sup>17)</sup> 이러한 감각의 교차가 색과 음악 사이에서 일어날 때는 ‘색청(color hearing)’이라

17) Cretien van Campen, *The Hidden Sense: Synesthesia in Art and Science*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08), 1.



는 구체적인 용어로 지칭하기도 한다.<sup>18)</sup> 실제로 예술가들은 공감각을 이용한 표현을 다양한 형태로 해왔는데, 다음에서 소개되는 스크리아빈과 림스키코르사코프(Nikolai Rimsky-Korsakov, 1844-1908)의 대화는 작곡가들이 어떻게 음악과 색을 공감각적으로 느꼈는지를 보여준다.

스크리아빈과 림스키코르사코프는 음악회장에서 나란히 옆에 앉았다. 스크리아빈은 연주되는 라단조의 음악을 들으며 노란색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림스키코르사코프는 자신은 금색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sup>19)</sup>

두 작곡가는 청취한 음악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음악을 듣고 색을 상상하고 개인적으로 느낀 정서를 나눴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표 1>은 러시아의 음악학자인 사바네예프(Leonid Leonidovich Sabaneyev, 1881-1968)가 이 두 작곡가가 공감각적으로 색과 소리를 인지한 것을 정리한 것인데, 스크리아빈의 경우 전통적인 장·단조의 틀을 넘어 그 만의 화성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조성’과 연결해서 색을 표현한 것과는 다르게 ‘음이름’과 연계된 색이 제시되어 있다.<sup>20)</sup> 그리고 <표 1>의 내용을 살펴보면 ‘D’, ‘E’ 그리고 ‘A b’에서는 두 작곡가의 색에 대한 의견이 유사하지만, 나머지 음들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이한 것이 발견된다. 하지만 ‘E b’에서 스크리아빈은 ‘금속광택이 나는 강철색’이라고 하고, 림스키코르사코프는 ‘B장조’를 ‘우울한, 강철빛이 도는 암청색’이라고 한 것을 보면 소리는 다르지만 색을 연상할 때 느낀 질감은 두 작곡가가 유사하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18) Kenneth Peacock, “Synesthetic Perception: Alexander Scriabin’s Color Hearing,” *Music Percep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4 (1985), 483.

19) Campen, *The Hidden Sense: Synesthesia in Art and Science*, 51.

20) Bulat M. Galeyev and I. L. Vanechkina, “Was Scriabin a Synesthete?,” *Leonardo* 34/4 (2001), 359.

〈표 1〉 스크리아빈과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공감각적 색과 소리의 인지<sup>21)</sup>

스크리아빈		림스키코르사코프	
소리	색	소리	색
C	빨강(red)	C장조	흰색(white)
G	주황-분홍(orange-pink)	G장조	갈색빛이 도는 금색, 밝은 (brownish-gold, light)
D	노랑(yellow)	D장조	햇빛, 노란빛을 띤, 황실색 (daylight, yellowish, royal)
A	초록(green)	A장조	맑은, 분홍(clear, pink)
E	흰 파랑(whitish-blue)	E장조	파랑, 사파이어, 밝은 (blue, sapphire, bright)
B	E와 비슷함(similar to E)	B장조	우울한, 강철빛이 도는 암청색 (gloomy, dark blue with steel shine)
F#	파랑, 밝은(blue, bright)	F#장조	회녹색(greyish-green)
D♭	보라(violet)	D♭ 장조	거무스름하고, 따뜻한 (darkish, warm)
A♭	자주 빛 보라(purplish-violet)	A♭ 장조	회색빛 보라(greyish-violet)
E♭	금속광택이 나는 강철색 (steel color with metallic sheen)	E♭ 장조	어둡고, 음침한, 푸르스름한 회색 (dark, gloomy, grey-bluish)
B♭	E♭ 과 비슷함(similar to E♭)	B♭ 장조	거무스름한(darkish)
F	빨강, 진한(red, dark)	F장조	녹색, 투명한(green, clear)

위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마다 소리를 듣고 색을 연상하는 공감각적 정서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편 독일의 작가이자 작곡가 그리고 화가이기도 했던 호프만(Ernst Theodor Amadeus Hoffmann, 1776-1822)과 독일의 시인이며 작곡가, 오르가니스트 그리고 기자로 활동했던 슈바르트(Christian Friedrich Daniel Schubart, 1739-1791)는 조성에 대한 느낌과 정서를 연결해서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21) Galeyev and Vanechkina, "Was Scriabin a Synesthete?," 359.

〈표 2〉 호프만과 슈바르트의 조성과 무드, 느낌의 상관관계<sup>22)</sup>

조성	호프만	슈바르트	조성	호프만	슈바르트
Ab 장조	천상의; 불타는 원 안에서 빛나는, 부드럽고, 황금빛, 엄청나게 풍만한	장례식 색채, 분해; 판단; 영원; 어두움	Bb 장조	온화한 서풍, 애절한 비밀; 슬픈, 참고 있는 슬픔	(언급 없음)
ab 단조	끝없는 욕망, 고통, 탈출을 위한 노력	(언급 없음)	Eb 장조	녹색, 삼림 지대; 뿔피리 소리, 명랑하고 우울한	사랑의 성조; 헌신적인 기도 (세 개의 평면은 성 삼위일체를 나타낸다.)
E 장조	불타는 광선; 왕관, 다이아몬드, 눈물, 불꽃, 용기, 힘	큰 기쁨; 즐거운 행복, 훌륭하지만 무시할 만큼은 아님, 기쁨	G 장조	도발	(언급 없음)
a 단조	사랑스러운 소녀; 어루만짐, 가장 달콤한 기쁨, 그러나 값어치는 고통, 불확실성	순수한 여성성; 성격의 부드러움	C 장조	기쁨; 열린 무덤 위에서 격렬한 춤을 추다; 트럼펫과 북을 치다	순수, 순진한 아이들의 목소리
F 장조	마음이 솟구침, 욕망과 사랑; 빛나는 마법; 비밀 실현된 꿈; 위로가 되는, 신의 계시	합의 가능성 및 휴식	c 단조	악마의 예감; 불타는 발톱이 심장을 움켜잡; 얼굴, 광기; 고통, 사막, 죽음	사랑의 선언; 한탄, 실망한 사랑, 나른함, 갈망, 사랑에 굶주린 영혼의 한숨
Bb 장조	기쁨, 행복; 봄	고요한 사랑; 순수한 양심; 희망, 쓴맛에 대한 열망, 세계			

〈표 1〉과 마찬가지로 〈표 2〉에서도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색을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정

22) 박지원,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총체예술 수업 모형: 초등학교 음악수업 모형,” 『낭만음악』 21/2 (2009), 37에서 재인용.

서를 일정한 잣대를 제시하고 특정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음악가들이 음악을 들으며 색을 상상하고 특별한 정서를 느낀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한편 미술가들 역시 색을 보며 소리를 상상하고 특별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공감각적인 정서를 느꼈는데, <표 3>은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11가지 대표색에 대해 미술가인 칸딘스키, 미국의 색상 전문가 아이즈먼(Leatrice Eiseman) 그리고 국내 색상 전문가 주리아가 느낀 정서와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색의 번득임》을 작곡한 알렉산더가 느낀 색에 대한 정서를 비교한 내용이다.

<표 3> 색에 따른 다양한 정서 표현

색	정서			
	칸딘스키 <sup>23)</sup>	아이즈먼 <sup>24)</sup>	주리아 <sup>25)</sup>	알렉산더 <sup>26)</sup>
분홍	(언급없음)	• 행복	• 달콤함 • 낭만적 • 부드러움 • 경박함 • 예민함	• 섬세함 • 가벼움 • 사랑스러움 • 부드러움 • 고요하고 평화로움
주황	• 저음의 목소리 • 라르고를 연주하는 비올라 • 건강한 감정 불러일으킴	• 재미 • 어린아이 • 활기	• 즐거움 • 이국적 • 맛있는 색 • 불안 • 번덕스러움	• 재미 • 명랑 • 쾌활 • 툭 쏘는
노랑	• 트럼펫 • 따뜻함	• 레몬의 노랑: 행복	• 밝음 • 유쾌함 • 불안정 • 경고	• 가슴을 후비는 듯함 • 반음계적 • 레몬색: 툭 쏘는, 신맛

23)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권영필 역,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경기: 열화당, 2021), 88-99.

24) Leatrice Eiseman, *Pantone® Guide to Communicating with Color* (Cincinnati, Ohio: HOW Books, 2000), 24-63.

25) 주리아, 『색즉소울: 색채심리 안내서』 (서울: 학지사, 2017), 110-450.

26) 테니스 알렉산더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2. 10. 31, 2023. 7. 30.

색	정서			
	칸딘스키	아이즈먼	주리애	알렉산더
녹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올린</li> <li>• 이상적인 균형감</li> <li>• 평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화함</li> <li>• 숲</li> <li>• 진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li> <li>• 신선</li> <li>• 생명</li> <li>• 건강</li> <li>• 치유</li> <li>• 단조로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뜻함</li> <li>• 푸르름</li> <li>• 고요</li> <li>• 평화로움</li> </ul>
파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루트(하늘색)</li> <li>• 첼로(어두운 파랑)</li> <li>• 콘트라베이스(검은 파랑)</li> <li>• 하늘의 색</li> <li>• 감정 가라앉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온함</li> <li>• 남옥색: 바다, 열대</li> <li>• 아쿠아: 상쾌함, 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음</li> <li>• 희망</li> <li>• 슬픔</li> <li>• 공포</li> <li>• 냉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옥색: 신비함</li> <li>• 아쿠아마린: 투명함, 맑은 물</li> <li>• 평화로움</li> <li>• 팽창</li> <li>• 재즈적</li> </ul>
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순 (목관악기)</li> <li>• 빨강의 따뜻함과 파랑의 차가움이 혼합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수께끼</li> <li>• 라벤더: 섬세함, 세련미, 꽃향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급스러움</li> <li>• 신비함</li> <li>• 예술적</li> <li>• 우울</li> <li>• 불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엄함</li> <li>• 홀려감</li> <li>• 라벤더: 부드러운, 고요함</li> </ul>
갈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적 아름다움</li> <li>• 억제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부함</li> <li>• 맛있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li> <li>• 따뜻함</li> <li>• 넓은</li> <li>• 촌스러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쫄깃함</li> <li>• 풍부함</li> <li>• 밤색: 가을</li> </ul>
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흰색: 중간휴지</li> <li>• 커다란 침묵</li> <li>• 가능성으로 차 있는 침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깨끗함</li> <li>• 가벼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빛</li> <li>• 순수</li> <li>• 두려움</li> <li>• 삭막함</li> <li>• 차가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밝음</li> <li>• 깨끗함</li> </ul>
회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향과 운동이 없는</li> <li>• 절망적인 부동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전적</li> <li>• 단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분명함</li> <li>• 고독</li> <li>• 슬픔</li> <li>• 강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음, 단단함</li> <li>• 추움</li> <li>• 황량함</li> </ul>
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 종결휴지</li> <li>• 가능성이 없는 침묵</li> <li>• 종결되는 휴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힘</li> <li>• 무거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두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지의</li> <li>• 매혹적</li> </ul>
금색	<p>(언급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빛</li> <li>• 열정</li> <li>• 마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빛</li> <li>• 찬란함</li> <li>• 허영</li> <li>• 사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상</li> <li>• 사랑</li> <li>• 소중한</li> <li>• 열정</li> <li>• 마술</li> </ul>

〈표 3〉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면 주황과 노랑 등의 밝은 색에서는 유쾌하고 활기찬 정서가 강조되고 녹색에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정서가 발견된다. 그리고 주황과 갈색의 경우에는 미각과 관련된 정서를 갖기도 해 흥미롭다. 흰색, 검정 사이에는 빛과 어두움이라는 극단적인 분위기도 나타나고 그 사이에 있는 회색에서는 불분명함의 성격이 드러나기도 한다. 한편 주리아의 경우 색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동시에 제시한 것이 흥미롭다. 노랑을 밝고 유쾌한 정서와 위험 및 경고를 동시에 표현한 것이 그 예다. 그뿐만 아니라 칸딘스키의 경우 색과 연결된 악기 소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알렉산더 역시 감정 혹은 이미지 등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제시하며 색을 통해 느껴지는 정서를 표현한 것이 발견된다. 알렉산더의 경우 스크리아빈과 림스키코르사코프처럼 노랑을 ‘반음계’, 파랑을 ‘재즈적’이라고 명시하며 색과 음계를 연결하였다. 또한 ‘톡 쏘는(주황)’, ‘가슴을 후비는 듯함(노랑)’, ‘쫄깃함, 풍부함(갈색)’ 그리고 ‘미지의, 매혹적(검정)’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은 그만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갈색에서는 ‘가을’과 같이 계절과 색을 연계한 표현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예술가들은 색을 통해 소리를 상상하고, 소리를 통해 색을 연상했으며, 이러한 공감각을 통해 각 색과 소리에 어울리는 특별한 정서를 느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바탕으로 알렉산더의 작품에서 그가 색을 통해 느꼈던 정서가 어떻게 음악으로 창조되었는지는 그의 작곡 기법을 살펴보며 소개하겠다.

## IV. 《색의 번득임》에 나타난 색의 표현기법

### 1. 색과 다양한 소재를 결합한 표제의 사용

《색의 번득임》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권에는 중급 초기 수준의 6곡, 제2권에는 중급 중기 수준의 5곡, 제3권에는 중급 후기 수준의 7곡이 수록되어 있다. 작곡가는 이 작품에 ‘연주에서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낭만적이고 현대적인 피아노 독주곡 (Romantic and Contemporary Piano Solos Designed to Enhance an Awareness of Imagery in Performance)’이라는 부제를 제시해 놓았고, 모든 작품에는 학생들이 특정 색을 상상하는 것을 돕는 표제가 붙어 있다.

〈표 4〉는 제1권부터 제3권까지 수록된 18개의 작품으로, 수록된 순서대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소재로 사용된 11가지의 색을 계열별로 한글 제목과 함께 재배열한 것이다. 그리고 색의 순서는 주리아가 『색즉소울: 색채심리 안내서』에서 제시한 순서(빨강-분홍-주황-노랑-녹색-파랑-보라-갈색-흰색-회색-검정-금색-은색)에 기초해서 배열하였다.<sup>27)</sup> 이와 더불어 18개 작품의 표제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거나 암시된 색을 색상 헥스 코드(color hex code)<sup>28)</sup> 검색을 통해 찾은 후 추가하였고, 동일한 계열의 색이어도 색의 명도에 따라 다른 색감을 띠므로

27) 주리아는 이러한 색의 배열에 대해 “파장의 길이가 가장 긴 빨강부터 파장이 가장 짧은 보라의 순서로 색을 제시하고, 갈색의 경우 넓게 보면 주황의 명도가 낮아진 것 이어서 무채색 바로 앞에 두었고, 흰색-회색-검정은 무채색 중 명도가 낮아지는 순서로 배열하였고, 금색과 은색은 광물의 속성으로 인한 색이라서 마지막에 제시하였다.”라고 밝혔다. 주리아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3. 7. 8. 주리아, 『색즉소울: 색채심리 안내서』, 8-9.

28) 색상 헥스 코드(color hex code)는 특정 색조의 빨강, 초록, 파랑의 세 가지 값을 조합하여 RGB 형식으로 색을 표현하는 16진수 방식이다. 이러한 색 16진수 코드는 웹 디자인을 위한 HTML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디지털로 색상의 형식을 표현하는 핵심 방법이다. 3자리나 6자리로 줄여서 표현하기도 한다. <https://www.techopedia.com/definition/29788/color-hex-code> [2023. 7. 13 접속].

먼셀(Albert H. Munsell, 1858-1918)이 만든 색입체<sup>29)</sup>에서 명도가 밝은 색부터 어두운색의 순서로 배치하였다. 그 중 <검정과 흰색>은 두 색이 하나의 악곡을 이루고 있어 무채색 배열은 흰색-검정-회색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 후 작곡가의 검증을 받는 과정도 거쳐 <표 4>를 완성하였다.

<표 4> 《색의 번득임》에 수록된 작품의 표제와 색 비교

색 <sup>30)</sup>	원제목	한글 제목
분홍	1권 Pink* Tulips	<분홍 튜립>
	2권 Zinc Pink*	<아연 핑크>
주황	1권 Orange* Soda	<오렌지 소다>
	3권 Tango à la Mango (Mango Tango*)	<망고 탕고>
노랑	3권 Lemon* Zest	<레몬 껍질>
초록	1권 Forest Green* (Green Forest*)	<녹색 숲> (짙은 황록색)
	2권 Green* Tangerine*	<청귤>
파랑	3권 Aquamarine*	<남옥(藍玉)> (연한 청록색)
	2권 Turquoise*	<터키옥> (청록색)
	1권 Blue* Boogie	<블루 부기>
보라	3권 Fields of Lavender*	<라벤더 들판>
	2권 Violet*ta	<비올레타>
갈색	2권 Dark Caramel*	<진한 캐러멜> (담갈색)
	3권 Dark Chestnut*	<진 밤색>
흰색 검정	3권 Black* and White*	<검정과 흰색>
회색	3권 Titanium* Toccata	<티타늄 토카타>
	1권 Gray Granite (Granite Gray*)	<회색 화강암> (짙은 회색)
금색	1권 A Touch of Gold*	<금의 감촉>

29) 먼셀의 색입체는 3차원 공간상에 색상, 명도, 채도를 균일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놓은 것으로 중심축의 상단에는 흰색, 하단에는 검정의 무채색을 기준으로 하여 세로축에 명도를 배치하고, 가로축에는 채도를, 방사형으로는 색상을 배치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9745&cid=42641&categoryId=42641> [2023. 7. 13 접속].

30) <표 4>의 색 분류에 제시된 색상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Encycolorpedia'에서 영문 색상 명을 입력한 후 검색되는 6자리의 색상 헥스 코드를 입력하여 제공하였음을 밝힌다. <https://encycolorpedia.com/> [2023. 7. 13 접속].



색의 이름은 보통 색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 명명하는 ‘계통 색이름’과 동물, 식물, 광물 등에서 이름을 따서 부르던 명칭이 굳어진 ‘관용 색이름’으로 구분되는데,<sup>31)</sup> 위의 <표 4>에서 색명(色名) 자체가 그대로 제목에 사용된 경우 \* 표기를 하였다. 그리고 제목과 유사한 색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목 옆 괄호에 색명을 넣어 제시하였다. 또한 관용 색이름이 사용되지 않은 작품에서도 ‘튤립’과 ‘아연’ 같은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러한 제목들은 스크리아빈이 ‘Eb’을 ‘금속광택이 나는 강철색’이라 표현하고, 림스키코르사코프가 ‘E장조’를 ‘사파이어’와 연계해서 생각한 것처럼 알렉산더가 작곡 과정에서 특정 색에 어울리는 소재들을 떠올리며 노력한 흔적으로 보여진다. 작곡가는 “이러한 소재들을 표제에 포함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상상력을 펼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sup>32)</sup>고 하였는데, 《색의 번득임》의 표제에 포함된 소재를 항목별로 분류해보면 <표 5>와 같이 요약된다.

<표 5> 표제에 포함된 소재의 분류

구분	소재
자연	숲, 튤립 꽃, 라벤더 들판
음식	오렌지 소다, 캐러멜, 탄제린(작은 오렌지), 레몬, 망고, 밥
돌 및 금속	화강암, 터키옥, 아쿠아마린(남옥), 금, 아연, 티타늄
음악 장르	부기(재즈), 탱고, 토카타
신조어	비올레타(Violetta)

31) 주리아, 『색즉소울: 색채심리 안내서』, 23-26.

32) Alexander, A Splash of Color Vol. 1, preface.

소재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 속 소재와 음식 종류들이 있고, 고유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돌이나 금속 소재도 등장한다. 그리고 음악의 장르를 제목에 포함한 작품도 볼 수 있다. 한편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인 ‘Violetta’는 작곡가가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인데, 알렉산더는 “보라색을 뜻하는 ‘violet’과 어미 ‘ta’를 합쳐 신비롭고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내어 궁금증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만들었다.”<sup>33)</sup>고 한다.

이처럼 색과 다양한 소재가 결합하게 되면 색으로만 악곡을 묘사했을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색이 떠오르고, 어떠한 장면이나 특징들을 연상 가능케 되어 곡의 전체적 분위기 혹은 정서도 함께 느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분홍 튜립〉의 경우 ‘분홍색’만 상상할 때보다 ‘분홍색의 튜립’을 떠올릴 때 구체적인 형상이나 질감, 후각 등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오렌지 소다〉의 경우에도 활발한 에너지를 가진 ‘오렌지’와 툭툭 튀는 ‘소다’를 동시에 상상하게 되면 제목을 통해 시각, 청각, 미각까지도 자극이 된다. 〈회색 화강암〉의 경우 ‘회색’의 강인하고 단단한 정서와 ‘화강암’이 합쳐져 곡을 연주하기 전부터 제목으로부터 전달되는 무거운 질감이 연상된다.

알렉산더는 〈녹색 숲〉을 연주할 때 “바라보는 모든 곳이 녹색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숲속에서 따뜻하고, 푸르고, 벨벳처럼 부드러운 이끼를 맨발로 밟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라.”<sup>34)</sup>고 주문한다. 이처럼 작곡가가 제시한 표제는 제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제목을 통해 이미지를 상상하고 색이 가지는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색에 어울리는 음악을 제시하여 시각과 청각 더 나아가서 촉각까지도 교차되는 공감각적인 심상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번스타인(Seymour Bernstein, 1927-)이 “작곡가들은 선율과 화음, 리듬과 악보에 적혀 있

33) 데니스 알렉산더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2. 10. 31.

34) 데니스 알렉산더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2. 11. 29.

는 다양한 기호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sup>35)</sup>라고 말한 것처럼, 알렉산더는 자신이 느끼는 색에 대한 정서를 그만의 음악어법을 사용하여 악보에 제시하였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색과 연관된 표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알렉산더가 사용한 다양한 작곡 기법들을 소개한다.

## 2. 색의 정서<sup>36)</sup> 표현을 위해 사용된 특징적 작곡 기법

### (1) 음계의 선별적 사용

“색은 조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조성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sup>37)</sup>는 스크리아빈의 말처럼, 알렉산더도 각 곡의 표제에서 제시된 색과 어울리는 음계의 사용에 대해 많이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작품집의 소재로 활용된 11가지 색을 표현하기 위해 장·단조뿐 아니라 선법, 온음음계, 반음계, 복조, 무조, 블루스(blues) 음계 등을 적용하였으며, 각 색에서 사용된 조성은 <표 6>과 같이 파악된다.

35) 시모어 번스타인(Seymour Bernstein)/김영숙 역, 『피아노 주법의 20가지 포인트』 (경기: 삼호뮤직, 2006), 서문.

36) 색에 대해 느끼는 정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에 본 장에서 소개되는 각 색과 관련된 정서는 앞서 3장의 <표 3>에서 제시되었던 알렉산더와의 인터뷰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37) Charles S. Myers, “Two Cases of Synaesthesia,”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 (1914), 113.

〈표 6〉 《색의 번득임》에서 사용된 조성 변화 유형

색	표제	조성 변화
분홍	〈분홍 톨립〉	C장조 - E♭장조 - A♭장조 - C장조
	〈아연 핑크〉	D믹솔리디아 - G중심조 - D♭장조 - E믹솔리디아 - C믹솔리디아 - A♭믹솔리디아 - D장조
주황	〈오렌지 소다〉	G장조
노랑	〈레몬 껍질〉	a단조 - C중심조, 온음음계 - a단조
	〈망고 탱고〉	d단조 - F장조 - d단조
녹색	〈녹색 숲〉	D장조
	〈청굴〉	G장조
파랑	〈블루 부기〉	F장조와 F 블루스 음계의 혼용
	〈터키옥〉	B♭리디아와 F장조의 혼용 - D♭장조 - B장조 - D장조 - B♭리디아와 F장조의 혼용
	〈남옥〉	D장조 - b단조 - D장조
보라	〈비올레타〉	F장조
	〈라벤더 들판〉	G프리지아, G에올리아, G장조의 혼용 - G♭장조 - B♭리디아 - G프리지아와 G장조의 혼용 - D♭장조 - G프리지아, G에올리아, G장조의 혼용 - G장조
갈색	〈진한 캐러멜〉	E♭장조 - B장조 - D장조 - E♭장조
	〈진 밤색〉	E♭장조 - B장조 - E♭장조 - C장조 - E♭장조
검정 흰색	〈검정과 흰색〉	흰 건반에 기초한 C장조, 검은 건반에 기초한 온음음계,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혼합한 온음음계의 혼용
회색	〈회색 화강암〉	C장조 - D장조
	〈티타늄 토카타〉	e단조
금색	〈금의 감촉〉	C장조 - E♭장조 - C장조

일반적으로 장조의 조성은 행복과 기쁨의 밝은 정서 그리고 단조는 슬픔의 어두운 정서를 표현하는데,<sup>38)</sup> 〈녹색 숲〉의 경우 한 곡 내에서 D

38) Alf Gabrielsson and Erik Lindström, "The Role of Structure in the Musical Expression of Emotions," *Handbook of Music and Emotion: Theory, Research, Applications* (New Yor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68.

장조의 조성이 유지되면서 초록색의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잘 드러난다. 활기차고 밝은 정서를 띠는 주황색을 표현한 〈오렌지 소다〉의 경우에도 G장조의 조성을 유지하며 밝은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한편 〈티타늄 토크타〉는 e단조에 기초하고 있는데 무채색인 회색을 띠는 티타늄의 색과 단조의 어두운 분위기가 잘 어우러진다.

이렇게 색이 가지는 정서를 한 개의 조성을 강조하며 드러낸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음계의 조합을 통해 색의 특징을 표현한 예도 발견된다. 알렉산더는 〈터키옥〉에 대해 “파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신비한 색을 띠는 터키석의 특징을 두 가지 음계를 섞어 표현하고자 했다.”<sup>39)</sup>라고 전한다. 〈악보 1〉을 살펴보면 종지음인 ‘B $\flat$ ’음과 특징음인 ‘E’음을 강조하는 B $\flat$  리디아 선법(B $\flat$ -C-D-E-F-G-A-B $\flat$ )과 F장조(F-G-A-B $\flat$ -C-D-E-F)가 절묘하게 혼용되어 있는데, 작곡가는 구성음이 같아도 종지음과 온음 및 반음의 위치가 상이한 리디아 선법과 F장조를 넘나들며 청록색의 터키옥을 절묘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라벤더 들판〉에서는 ‘G’음을 중심으로 G프리기아 선법, G에올리아 선법 그리고 G장조의 음계가 함께 쓰였는데, 3가지 음계의 결합과 흰색·빨강·파랑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라벤더의 연보라색이 연계되어 흥미롭게 여겨졌다.

〈악보 1〉 〈터키옥〉 마디 3-10

종지음 B $\flat$       특징음 E

B $\flat$  리디아 선법                      F: ii7              V7              I7              I

39) 데니스 알렉산더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3. 2. 17.

한편 〈검정과 흰색〉은 오음음계와 C장조가 결합한 복조에 기초한 작품인데 색이 가지는 정서보다 검은 건반과 흰 건반으로 이루어진 피아노의 특징을 재료로 활용하여 색과 매치시킨 것이 발견된다. 알렉산더는 이 곡에 대해 “피아노 건반의 특징에서 파생된 아이디어를 복조, 온음음계, 오음음계, C장조 조성의 결합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흑과 백의 극단적인 대비를 불협화음이 강조되는 현대적 음색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재미있는 요소를 더해 주고자 하였다.”<sup>40)</sup>고 밝혔다. 작곡가와의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피아노 건반에서 나타나는 흑과 백의 대조는 작품 속에서 여러 형태로 발견되는데, 〈악보 2, 3,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왼손과 오른손에서 동시에 두 개의 조성이 연주되어 복조의 형태로 진행되는 예, 왼손과 오른손에서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교차하면서 온음음계로 진행되는 예 그리고 1마디 혹은 2마디 단위로 C장조와 검은 건반에 기초한 오음음계를 번갈아 제시하면서 음색의 대비를 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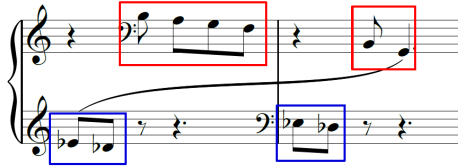
#### 〈악보 2〉 〈검정과 흰색〉 마디 15-18

C장조

검은 건반 오음음계

40) 테니스 알렉산더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2. 11. 29.

〈악보 3〉 〈검정과 흰색〉 마디 7-8



오음음계 Eb - Db - B - A - G - F

〈악보 4〉 〈검정과 흰색〉 마디 31-36



C장조

검은 건반 오음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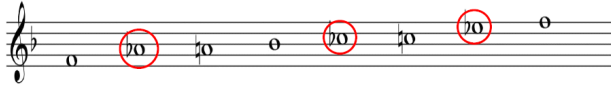
C장조

검은 건반  
오음음계

그런가 하면 〈블루 부기〉의 경우 표제로 사용된 ‘블루’가 ‘파란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블루 노트(blue note)’에서 사용된 ‘블루’와도 매치되어 중의적(重義的)의미를 가진다. 블루스 음계에서는 〈악보 5〉와 같이 3음, 5음, 7음을 반음 낮춘 구성음, 즉 블루 노트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알렉산더는 이와 같은 블루스 음계의 특징을 반영하여 〈블루 부기〉에서 “F 블루스 음계의 3음인 ‘A $\flat$ ’음이 강조된 선율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재즈적 분위기를 자아내하고자 하였다.”<sup>41)</sup>고 밝혔다(악보 6).

41) 테니스 알렉산더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3. 2. 17.

〈악보 5〉 F 블루스 음계



블루 노트: A $\flat$                       C $\flat$                       E $\flat$

〈악보 6〉 〈블루 부기〉 마디 1-2

Bouncy (♩ = 144)



위에서 제시된 예들을 종합해보면 알렉산더는 음계의 선별적 사용을 통해 색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색이 가지는 정서에 초점을 맞추거나, 피아노 건반의 특징을 색과 연계하는 방식 혹은 색이 가지고 있는 중의적 의미를 활용하여 색과 음악을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

(2) 낭만주의 및 재즈를 포함한 현대적 화성 어휘의 적용

알렉산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작품집에 ‘낭만적이면서 현대적인 독주곡집’이라는 부제를 붙여 놓았다. 그리고 이 제목에 걸맞게 낭만주의 이후 작곡가들이 즐겨 사용한 다양한 화성 어휘를 사용하여 색채감이 풍부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19세기 음악에서의 화성은 조성체계에 바탕을 둔 고전적 화성을 토대로 전개되었지만, 반음계주의, 변화화음, 3도를 계속 쌓아 올린 복합화성(7·9·11화음), 불협화음의 사용 등



을 통하여 조성적 화성 체계는 확대와 와해의 과정을 동시에 겪었다.<sup>42)</sup> 알렉산더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화음들의 사용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악보 7〉은 화음의 전위와 선율의 반음계적 진행, 차용 화음의 사용으로 평온한 분위기 만들어낸 예이고, 그 외에도 〈악보 8, 9〉와 같이 나폴리 6화음, 증화음 등을 이용해 다채로운 음색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악보 7〉 〈녹색 숲〉 마디 1-4



〈악보 8〉 〈남옥〉 마디 17-18

〈악보 9〉 〈청굴〉 마디 53-54



한편, 7화음도 작품집 전반에 걸쳐 자주 사용하였는데, 〈비올레타〉와 〈분홍 톨립〉에서는 장7화음과 단7화음의 연속된 진행을 통해 해결을 뒤로 미루면서 〈표 3〉에서 언급된 보라에서 연상되는 수수께끼와 분홍의 낭만과 같은 정서가 표현된다(악보 10, 11). 특히 7화음의 사용은 알렉산더의 다른 작품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러한 화음의 사용은 그의 작품 전반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낭만적인 정서 표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2) 홍정수·김미옥·오희숙, 『두길 서양 음악사 2: 고전에서 20세기까지』 (서울: 나남출판, 2009), 162.

〈악보 10〉 〈비올레타〉 마디 21-23

E ♭ maj7 Dm7                      Cm7 B ♭ maj7                      A ♭ 7      Gm7

〈악보 11〉 〈분홍 툄립〉 마디 23-26

A ♭ maj7                      Gm7                      Fm7                      E ♭ maj7

또한 예측하지 못한 화성의 전개로 색채의 변화를 피하는 예도 여러 번에 걸쳐 발견되는데, 〈회색 화강암〉의 경우 왼손에서 고집스럽게 울려 퍼지는 'D'음과 오른손 장3화음의 반음계적 진행이 어우러져 무조의 분위기가 강하게 뿜어져 나오고, 이는 회색의 이미지와도 잘 어우러진다 〈악보 12〉. 그리고 〈비올레타〉의 경우에도 〈악보 13〉와 같이 예상치 못한 화성이 전개되면서 보라색의 신비스러운 에너지가 느껴진다.

〈악보 12〉  
〈회색 화강암〉 마디 1-2

Andante (♩ = 88)

*con forza*  
**ff**

〈악보 13〉  
〈비올레타〉 마디 3-4

특히 〈비올레타〉의 경우 재즈 작품에서 많이 발견되는 텐션 음(tension note)<sup>43)</sup> 중 ‘add2’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이를 통해 화성의 풍부함이 더해진다. 이와 더불어 알렉산더는 “〈금의 감촉〉에서 금빛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sup>44)</sup>고 밝히며 재즈적 화성 어휘인 ‘add2’와 ‘add6’뿐 아니라 으뜸음인 ‘C’음을 페달 포인트(pedal point)로 사용하여 예측하지 못한 소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반짝반짝 빛나는 금색의 특징을 드러내었다. 페달 포인트를 이용해서 소리를 섞는 작곡 기법은 다른 곡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진한 캐러멜〉의 경우에는 ‘E♭’음이 페달 포인트로 사용되면서 끈적끈적한 캐러멜의 점성이 잘 나타난다(악보 15). 이러한 다양한 화성 어휘의 적용은 다채로운 음색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각 작품의 색을 구별되게 각인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악보 14〉 〈금의 감촉〉 마디 1-4

Andante cantabile (♩ = 96)

43) 텐션 노트(tension note)란 코드에 첨가되는 장식적인 음을 말하며, 근음으로부터 3도 간격으로 음을 쌓아 올렸을 때 다섯 번째부터 구성되는 9도, 11도, 13도의 음이고, 이와 같은 텐션 노트는 코드의 긴장감이나 풍성함을 연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박경연, 『이론과 연주를 함께하는 실용음악화성』(서울: 삼호ETM, 2020), 138.

44) 데니스 알렉산더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2. 10. 31.

〈악보 15〉 〈진한 캐러멜〉 마디 1-3



(3) 색과 소재의 특징이 반영된 음악 요소의 선택

1) 박자와 리듬

박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를 엿볼 수 있는데, 〈표 7〉과 같이 홀박자 외에도 겹박자, 혼합박자, 변박자가 사용된 것이 발견된다.

〈표 7〉 《색의 번득임》에서 나타나는 박자 유형 비교

홀박자		혼합박자	
2/2	〈오렌지 소다〉, 〈티타늄 토키타〉	5/4	〈회색 화장암〉
2/4	〈레몬 껍질〉, 〈망고 텅고〉	5/8	〈아연 핑크〉
3/4	〈금의 감촉〉, 〈분홍 틀립〉	8/8 (3+3+2/8)	〈비올레타〉
4/4	〈녹색 숲〉, 〈블루 부기〉, 〈진한 캐러멜〉, 〈남옥〉, 〈진 밤색〉		
겹박자		변박자	
6/4	〈라벤더 들판〉	2/2, 3/2	〈티타늄 토키타〉
6/8	〈청굴〉, 〈검정과 흰색〉		

알렉산더는 6/4박자로 작곡된 <라벤더 들판>의 흘러가는 8분음표(♪) 리듬 패턴은 라벤더 들판에 산들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보라색의 온화한 물결을 표현한 것이고, 2/2박자로 작곡된 <티타늄 토카타>의 분산화음으로 이루어진 빠른 음형은 비행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티타늄의 성질을 생각하며 작곡한 것이라고 하였다.<sup>45)</sup> 동시에 작곡가는 3분할 박인 점2분음표(♩)가 기준박인 6/4박자의 부드러운 분위기를<악보 16> 그리고 2분할 박인 2분음표(♩)가 기준 박인 2/2박자의 직선적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는 리듬 패턴도 제시하였다<악보 17>. 이러한 세밀한 박자와 리듬의 선택은 표제가 가지는 색과 소재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악보 16> <라벤더 들판> 마디 1-2

<악보 17> <티타늄 토카타> 마디 1-2

45) 데니스 알렉산더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2. 11. 29.

한편 율박자 계열의 박자에 기초한 <녹색 숲>은 4/4박자의 기준 박인 4분음표(♩)의 규칙적인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리듬의 선택으로 녹색의 안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데<악보 18>, <오렌지 소다>는 마디 줄을 벗어난 리듬의 조합으로 인해 2/2박자로 박자표기는 되어 있지만 <악보 19>와 같이 3/4박자로 진행되다가 프레이즈가 마무리될 때 2/2박자로 돌아온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주황색의 활동성을 잘 드러낸다.

<악보 18> <녹색 숲> 마디 1-4

<악보 19> <오렌지 소다> 마디 1-4

Presto "fizzioso" (♩ = 116)

<비올레타>에서는 <악보 20>과 같이 박자표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 곡이 혼합박자에 기초한 작품임을 강조해서 나타낸다. 알렉산더는 이 곡에서 “♩ + ♩ + ♩”로 구성된 박의 조합에 기인한 불규칙한 악센트의 흐름을 통해 빨강과 파랑이 혼합된 보라색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살려주고

자 하였다.”<sup>46)</sup>고 말한다. 또한 한마디가 5박으로 이루어지는 혼합박자에 기초한 것은 동일하지만 〈회색 화강암〉은 ♩ + ♩의 조합으로 된 5/4박자에 기초하고 〈악보 21〉, 〈아연 핑크〉는 음가가 상대적으로 짧은 ♩ + ♩의 조합으로 된 5/8박자에 기초한 것으로 나타나 표제에 내포된 무겁고 가벼운 질감의 특징이 박자 선택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악보 22〉.

〈악보 20〉 〈비올레타〉 마디 1-2

Moderato

〈악보 21〉  
〈회색 화강암〉 마디 1-2

Andante (♩ = 88)

〈악보 22〉  
〈아연 핑크〉 마디 1-2

Presto

2) 아티클레이션

아게이(Denes Agay, 1911-2007)는 “아티클레이션에 의해 프레이즈의 세밀한 구조(design)와 음색(color)이 만들어진다.”<sup>47)</sup>고 언급하였는데,

46) 데니스 알렉산더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3. 2. 17.

47) Denes Agay and Hazel Ghazarian Skaggs, *The Art of Teaching Piano: The Classic Guide and Reference Book for All Piano Teachers* ed. Denes Agay (New York, New York: Yorktown Music Press, Inc., 2004), 74.

알렉산더 또한 아티큘레이션의 구별된 사용을 통해 각 음악에서 요구되는 차별되고 특징적 음색을 만들어냈고 이는 표제에 포함된 색과 소재가 가지는 특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이어진다. 아래의 <표 8>을 보면 《색의 번득임》 제1, 2, 3권에서 특정 아티큘레이션이 강조된 곡과 관련된 알렉산더와의 인터뷰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그는 연주 시 표제에 제시된 색과 소재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내용을 다채로운 소리로 만들어낼 것을 주문한다.<sup>48)</sup>

<표 8> 색과 소재의 표현을 위해 사용된 아티큘레이션 비교

표제	아티큘레이션	설명
<금의 감촉>	레가토	골드바(gold bar)를 만지는 것같이 부드럽게 연주하기
<분홍 튜립>	레가토	꽃을 쓰다듬듯이 건반의 윗부분 쓰다듬기
<오렌지 소다>	레가토, 포르타토 그리고 스타카토가 결합된 형태	소다를 흔들어서 거품이 차고 흘러넘치는 모습을 상상하며 빠르고 선명하게 연주하기
<아연 핑크>	스타카토	열은 분홍색을 상상하며 레지에로(leggiero)의 터치로 연주하기
<진한 캐러멜>	레가토	끈적끈적한 캐러멜의 점성을 느끼며 연주하기
<레몬 껍질>	레가토, 포르타토 그리고 스타카토가 결합된 형태	레몬을 먹고 신맛을 느끼며 쩡그리는 표정을 상상하며 연주하기
<검정과 흰색>	스타카토 vs 레가토	대조적인 터치로 연주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연주하기

위의 <표 8>에서 나타난 알렉산더의 설명을 살펴보면 표제에 담긴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티큘레이션의 사용에 대한 고민이

48) 데니스 알렉산더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2. 11. 29, 2023. 2. 17.



엿보인다. 이를 통해 테크닉 향상을 위한 건반 위에서의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연습을 요구하는 대신 작곡가는 이미지 상상을 통해서 테크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제안한다. 특히 〈금의 감촉〉, 〈분홍 툴립〉 그리고 〈진한 캐러멜〉의 경우 레가토의 아티कु레이션<sup>49)</sup>을 살릴 수 있는 페달 표기가 곡 전반에 걸쳐 명시되어 있고, 〈오렌지 소다〉와 〈레몬 껍질〉의 경우에는 소다와 레몬의 속성과 연결되는 스타카토 아티कु레이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곡에서는 절제된 페달 사용이 명시된 것이 발견된다. 또한 〈검정과 흰색〉에서는 검정과 흰색의 대조를 스타카토와 레가토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대조적인 페달의 사용을 한 곡 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세밀한 악보 표기를 통해 학생들은 색과 관련된 다양한 정서를 느끼면서 작품을 연주하는 것 뿐 아니라 중급 수준에서 배워야 하는 다양한 테크닉도 저절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 3) 빠르기 및 나타냄말

‘Grave’의 경우 어원을 살펴보면 ‘very slow(매우 느림)’와 ‘serious(진지함),’ ‘Allegro’는 ‘fast(빠름)’와 ‘cheerful(생기발랄함)’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빠르기 관련 용어가 음악의 속도뿐만 아니라 음악의 성격(character)을 규명하는 뜻도 포함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sup>49)</sup> 즉, 빠르기의 변화가 인간의 다양한 정서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음악이 불러일으키는 감성적인 반응을 과학적으로 추적하기 위하여 ‘형용사 분류표(adjective checklist)’를 처음 적용했던 물리(Kate Hevner Mueller, 1898-1984)의 연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음악을 ‘느리게’ 연주

49) Don Michael Randel, “Performance marks,”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622.

했을 때 ‘잔잔한’, ‘고요한’, ‘조용한’, ‘슬픈’, ‘부드러운’, ‘꿈꾸는 듯한’과 같은 일관성 있는 형용사들이 선택됐지만, 같은 음악을 ‘빠르게’ 연주했을 때 ‘즐거운’, ‘행복한’, ‘흥분되는’, ‘역동적인’ 등과 같은 형용사들이 선택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sup>50)</sup>

알렉산더는 빠르기 표기를 위해 이탈리아 용어로 적힌 빠르기 표기, 메트로놈 정보 그리고 악곡의 성격을 내포하는 나타냄말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이는 각 곡의 제목에서 풍기는 분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제시된 색과 소재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재치가 넘치는 나타냄말의 표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Presto fizzoso’ (♩=116)라는 빠르기 표기가 되어 있는 <오렌지 소다>에서는 ‘fizzoso’라는 신조어가 발견된다. 알렉산더는 이 용어를 “음료가 거품이 일며 나는 소리인 ‘쉬익(fizz)’에서 착안해서 만들었다.”<sup>51)</sup>고 한다. 그리고 <아연 핑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탈리아 용어인 ‘Presto’만 표기하며 “아연 가루가 로켓 추진체에 쓰인다는 사실을 토대로 로켓의 빠른 속도를 상상하며 이 곡의 빠르기를 설정했다.”<sup>52)</sup>고 하였다.

이 외에도 ‘Bouncy’ (♩=144)라고 표기된 <블루 부기>, ‘Tenderly’ (♩=126)라고 표기된 <분홍 톨립>처럼 색과 소재의 특징을 영어 형용사로만 표기한 예도 발견된다. 그리고 이탈리아 용어와 악곡의 표정을 담은 명사를 결합하여 그 작품의 성격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한 예도 볼 수 있는데, ‘Andantino e placido’ (♩=60-63)라고 표기된 <라벤더 들판>의 경우 ‘잔잔한’이라는 뜻을 지닌 ‘placido’가 사용되어 라벤더가 핀 평온한 들판의 분위기를 상상하는 것을 도와준다. 한편 <망고 탱고>의 경우 ‘Moderato e deciso’ (♩=63-69)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탱고의 열

50) 승윤희·정진원, 『음악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2021), 98에서 재인용.

51) 테니스 알렉산더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2. 11. 29.

52) 테니스 알렉산더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2. 11. 29.

정과 성숙함을 스페인어로 ‘결단력이 있는’이라는 뜻을 가진 ‘deciso’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제에 담긴 색과 소재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작곡가의 빠르기 표기는 빠르기의 해석이 속도에만 국한되면 안 되고, 악곡의 분위기까지도 파악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장치로 여겨졌다.

#### 4) 음역과 셈여림

알렉산더는 음역에 관하여 <레몬 껍질>을 예로 들며 “나무 위에 높이 매달려있는 레몬을 고음역에서 표현하였다.”<sup>53)</sup>라고 언급하며 소재의 특징이 음역에 반영되었음을 전한다. 특히 <블루 부기>는 전체 24마디 중 19마디가 양손 모두 낮은음자리표에서 제시되어 바다 속 심연의 색인 어두운 파랑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반대로 <분홍 튜립>의 경우 전체 53마디 중 42마디가 양손 모두 높은음자리표에서 제시되어 섬세하고 가벼운 분홍색을 잘 드러낸다.<sup>54)</sup> 한편 셈여림과 관련해서 <녹색 숲>은 *mp*에서 *mf*, <라벤더 들판>은 *mp*에서 *f*까지 셈여림이 펼쳐지며 전반적으로 *mp*의 셈여림이 강조되며 악곡이 진행된다. 반면에 <검정과 흰색>은 *mp*에서 *ff*, <블루 부기>는 *p*에서 *ff*까지 셈여림 기호가 제시되는데, *mf* 이상의 셈여림이 강조되는 것이 발견된다.

이와 더불어 음역과 셈여림이 긴밀하게 연결되며 적용된 것도 빈번히 나타난다. <블루 부기>는 양손이 모두 낮은음자리표에서 시작하며 *f*의 셈여림이 제시된다(악보 23). <분홍 튜립>의 경우(악보 24)와 같이 높은음자리표만 사용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음역에서 선율이 전개될 때 *mp*의 셈여림이 제시되어 음역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셈여림을 작곡가가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색 화강암>에서는 극단적인 음역의 대조와 *ff*를 통해 강하고 단단한 정서가 강조된다(악보 25).

53) 데니스 알렉산더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2. 11. 29.

54) 데니스 알렉산더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2. 10. 31.

〈악보 23〉  
〈블루 부기〉 마디 1-2

Bouncy (♩ = 144)

〈악보 24〉  
〈분홍 툴립〉 마디 1-2

Tenderly (♩ = 126)

〈악보 25〉 〈회색 화강암〉 마디 23-24

〈검정과 흰색〉의 경우 〈악보 26〉과 같이 높은 음역과 *f*의 셈여림을 결합하고, 반대로 낮은 음역과 *mp*의 셈여림을 결합하여 제목에서 나타나는 색의 대비를 음역과 셈여림의 대조로 효과적으로 보여준다(악보 27).

〈악보 26〉  
〈검정과 흰색〉 마디 1-2

〈악보 27〉  
〈검정과 흰색〉 마디 17-18

이러한 예들을 통해 알렉산더는 이 작품에서 조성, 화성, 박자, 리듬, 아티큘레이션, 빠르기와 나타냄말뿐 아니라 음역과 셈여림의 적용을 통해서도 구별된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것으로 파악되며, 이 모든 음악 요소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조합되어 색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V. 나가는 말

음악을 들으며 색을 상상하고, 색을 보며 다양한 정서를 느끼는 공감각적 심상은 음악가뿐 아니라 미술가들에 의해서도 오랫동안 조명되어 왔다. 스크리아빈과 립스키코르사코프가 ‘음이름’과 ‘조성’을 연계해서 특정 색을 연상하고, 호프만, 슈바르트 그리고 칸딘스키 등이 조성 및 악기의 음색에서 특정 정서를 느낀 것처럼 알렉산더는 《색의 번득임》을 연주하는 이들이 음악과 색을 함께 떠올리는 공감각을 느끼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수많은 교육용 작품을 작곡한 알렉산더가 이 작품을 통해 다루고자 한 것은 상상을 통한 배움이라는 점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색이 사용되었고, 그 색이 가진 풍부한 정서와 이미지가 작품 속에 녹아 있다. 더 나아가 색과 그에 어울리는 소재를 결합한 표제는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더해 주고, 표현력 있는 연주를 끌어내기 위해 작곡가가 심사숙고한 흔적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알렉산더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악보에 표시되지 않은 작곡가의 생각을 나누고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라고 여겨진다.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교수자로서의 경험도 나눌 수 있었는데, 다음은 공감각적인 정서와 관련하여 이 작품을 연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서 소개한다.

이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청중에게 눈을 감고 내가 연주하는 〈터키옥〉을 들었을 때 어떤 색이 떠오르는지 물었다. 그때 대다수 청중이 파랑과 초록의 색이 느껴진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왼손의 반주가 물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파란색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었다고 하였다.<sup>55)</sup>

작곡가는 색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 요소를 결합하였는데, 이 모든 요소들이 섬세하게 조합되어 표제에서 제시된 색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까닭에 위에서 제시된 일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표제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그의 연주를 듣는 것만으로 청중들이 색을 상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색의 번득임》에 드러난 모든 음악 요소들은 알렉산더가 색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18곡의 작품 분석 결과 1) 다양한 음계(장·단조뿐 아니라 선법, 온음음계, 반음계, 복조, 무조, 블루스 음계)의 선별적 사용, 2) 낭만 및 재즈를 포함한 현대적 화성 어휘의 적용, 3) 색과 소재의 특징이 반영된 음악 요소(박자, 리듬, 아티큘레이션, 빠르기, 나타냄말, 음역과 셈여림)의 선택을 통해 각 곡의 표제에서 제시된 색이 가진 특징적 정서가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11가지의 색(분홍,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갈색, 흰색, 검정, 회색, 금색)이 작품집에서 소개되었는데, 색 고유의 이름뿐 아니라 색의 정서와 어울리는 소재를 자연, 음식, 돌, 금속, 음악 장르 등에서 가져와 표제를 만들어 학생들이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음악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서 《색의 번득임》은 피아노를 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감각적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는 작품집이라 할 수 있겠다.

다양한 장르 간의 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대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 외적 요소를 활용한 교육용 작품 창작 아이디어를 탐

55) 테니스 알렉산더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3. 2. 17.

색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제공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교육자이자 작곡가로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알렉산더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얻은 내용들은 이 곡을 연주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알렉산더의 피아노 작품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의 공감각적 정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용 작품 창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

주 제 어    데니스 알렉산더, 색과 음악, 《색의 번득임》, 공감각,  
              교육용 피아노 작품  
              Dennis Alexander, color and music,  
              《A Splash of Color》, synesthesia,  
              pedagogical piano composition

## 참고문헌

- 그라우트, 도널드 제이·클로드 브이 팔리СКА·제이 피터 버크홀더(Grout, Donald J., Claude V. Palisca and J. Peter Burkholder)/민은기 외 역. 『그라우트의 서양 음악사』. 서울: 이앤비플러스, 2013.
- 김길호·백정기. 『사운드 컬러 하모니즘』. 서울: ㈜임프레스, 1997.
- 김한솔. “피트몬드리안 작품에서 표현되는 재즈의 미학적 영향.” 『문화와 융합』 40/4 (2018), 29-46.
- 박경연. 『이론과 연주를 함께하는 실용음악화성』. 서울: 삼호ETM, 2020.
- 박지원.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총체예술 수업 모형: 초등학교 음악 수업 모형.” 『낭만음악』 21/2 (2009), 5-38.
- 번스타인, 시모어(Bernstein, Seymour)/김영숙 역. 『피아노 주법의 20가지 포인트』. 경기: 삼호뮤직, 2006.
- 승윤희·정진원. 『음악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2021.
- 윤익영. “음악에서 영감을 얻는 현대 미술가들 연구.” 『현대미술학 논문집』 16/2 (2012), 110-154.
- 이연경. “로버트 스타리의 교육용 피아노 작품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17/2 (2016), 165-189.
- 주리애. 『색즉소울: 색채심리 안내서』. 서울: 학지사, 2017.
- 칸딘스키, 바실리(Kandinsky, Wassily)/권영필 역.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경기: 열화당, 2021.
- \_\_\_\_\_/차봉희 역. 『점·선·면』. 경기: 열화당, 2021.
- 홍정수·김미옥·오희숙. 『두길 서양 음악사 2: 고전에서 20세기까지』. 서울: 나남출판, 2009.
- Agay, Denes and Hazel Ghazarian Skaggs. *The Art of Teaching Piano: The Classic Guide and Reference Book for All Piano Teachers*. Edited by Denes Agay. New York, New York: Yorktown Music Press, Inc., 2004.
- Albergo, Cathy and Reid Alexander. *Piano Repertoire Guide: Intermediate*



- and Advanced Literature* 5<sup>th</sup> Edition. Champagne, Illinois: Stipes Publishing L.L.C., 2011.
- Alexander, Dennis. *A Splash of Color* Vol. 1, 2. Van Nuys, California: Alfred Music, 1990.
- \_\_\_\_\_. *A Splash of Color* Vol. 3. Van Nuys, California: Alfred Music, 2011.
- \_\_\_\_\_. *24 Character Preludes*. Van Nuys, California: Alfred Music, 2001.
- Campen, Cretien van. *The Hidden Sense: Synesthesia in Art and Science*.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The MIT Press, 2008.
- Eiseman, Leatrice. *Pantone® Guide to Communicating with Color*. Cincinnati, Ohio: HOW Books, 2000.
- Galeyev, Bulat M. and I. L. Vanechkina. "Was Scriabin a Synesthete?." *Leonardo* 34/4 (2001), 357-361.
- Jiang, Yining Jenny. "Connection between Visual Arts and Music: The Painting and Music of I-Uen Wang Hwang." D.M.A. Diss., James Madison University, 2017.
- Juslin, Patrik N and John A. Sloboda. *Handbook of Music and Emotion: Theory, Research, Applications*. New Yor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Kirby, Frank Eugene. *Music for Piano: A Short History*. Pompton Plains, New Jersey: Amadeus Press, LLC, 1995.
- Myers, Charles S. "Two Cases of Synaesthesia."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 (1914), 112-117.
- Peacock, Kenneth. "Synesthetic Perception: Alexander Scriabin's Color Hearing." *Music Perception* 2/4 (1985), 483-505.
- Randel, Don Michael. "Performance marks."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Roberts, Paul. *Images: The Piano Music of Claude Debussy*. Portland,

Oregon: Amadeus Press, 1996.

Song, Gao. “Robert Starer 중급 피아노 작품 Sketches in Color 분석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https://encycolorpedia.com/>. 2023. 7. 13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9745&cid=42641&categoryId=42641>. 2023. 7. 13 접속.

<https://www.alfred.com/search/products/?query=Dennis+Alexander>. 2023. 7. 13 접속.

[https://www.dennisalexander.com/da\\_full\\_bio.html](https://www.dennisalexander.com/da_full_bio.html). 2023. 7. 13 접속.

<https://www.halleonard.com/search/search.action?keywords=Dennis+Alexander&dt=item#products>. 2023. 7. 13 접속.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1580](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1580). 2023. 7. 7 접속.

<https://www.techopedia.com/definition/29788/color-hex-code>. 2023. 7. 13 접속.

데니스 알렉산더(Dennis Alexander)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2. 10. 31, 2022. 11. 29, 2023. 2. 17, 2023. 7. 30.

주리아와의 이메일 인터뷰. 2023. 7. 8.

## Abstract

### A Study on the Techniques of Color Representation in Dennis Alexander's 《A Splash of Color》

Min, Hyoin · Ryu, Seung-Ji

《A Splash of Color》, composed by Dennis Alexander (b. 1947-), is a piano solo collection that combines color and music to evoke students' synaesthetic imagery. The three volumes, which are composed at an intermediate level, contain a total of 18 piano pieces each encompassing unique emotions of the colors presented in their titles. This study aimed to discover Alexander's distinctive musical grammar used to express the emotions of colors. To achieve this goal, the research involved the analysis of 《A Splash of Color》 and interviews with the composer using e-mail.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Alexander used 11 different colors (pink, orange, yellow, green, blue, purple, brown, white, black, gray, and gold) in 18 pieces. He not only used intrinsic names of colors but also derived titles from materials matched with the emotions of those colors, such as nature, food, metals, and music genres. The study revealed that Alexander expressed the distinctive emotions correlate with each color indicated in the titles through the following musical elements: By employing 1) Selective use of various scales, not only major and minor, but also mode, whole-tone scale, chromatic scale, bitonality, atonality, and blues scale, 2) Application of modern harmonic vocabulary, including Romantic and jazz style music, and 3) Selection of musical element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and materials(meter, rhythm,

articulation, tempo, expression mark, register, and dynamic), he effectively conveyed the distinct emotions of the colors mentioned in the titles of each piec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serve as valuable resources for performers of this piece by helping them in interpreting the work with imagination.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ese results will inspire those exploring ideas for educational works using non-musical elements.

〈부록 1〉 알렉산더의 모음곡집 목록<sup>56)</sup>

제목	작곡 년도	난이도	제목	작곡 년도	난이도
24 Character Preludes	2001	LI - EA	Keys to Artistic Performance Book 1, 2, 3	2008	EI - EA
A Christmas Fantasy	1992	LI - EA	Keys to Stylistic Mastery Book 1, 2, 3	2003	LE - LI
A Christmas Tree-O!	1995	LE	Magical Overtures	2021	LE - LI
Animal Magic	1994	E	Magnificent Overtures	2021	I - LI
A Splash of Color Book 1, 2, 3	1-2: 1990, 3: 2011	EI - LI	Mini Overtures	2021	E
Christmas Silhouettes	1990	I	Mr. A. Presents... First Lyric Pieces First Ragtime Pieces First Showstoppers!	1996 1997 1996	LE LE LE
Christmas Improvisations Book 1, 2	2020	EI - LI	Nocturnes Book 1, 2	2018	EI - LI
Dennis Alexander's Favorite Solos Book 1, 2, 3	2006	E - EA	Performing in Style	1989	I
Especially for Adults Book 1, 2, 3	2007	EI - LI	Planet Earth	1991	LE - EA
Especially for Boys	1998	LE	Repertoire by Rote	2015	E
Especially for Christmas Book 1, 2, 3	2008	EI - LI	Sacred Silhouettes	1990	EI - LI

56) 작품은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였고, 난이도의 약자 표기는 'EE: Early Elementary, E: Elementary, LE: Late Elementary, EI: Early Intermediate, I: Intermediate, LI: Late Intermediate, EA: Early Advanced'로 이루어졌다.

제목	작곡 년도	난이도	제목	작곡 년도	난이도
Especially for Girls	1998	LE - EI	Sacred Silhouettes Revisited	1994	EI - LI
Especially in Jazzy Style Book 1, 2, 3	2010	EI - LI	Showstoppers!	1994	I - LI
Especially Popular Christmas Book 1, 2, 3	2008	EI - LI	Simply Sensational! Book 1, 2	1991	LE - EI
Especially in Romantic Style Book 1, 2, 3	2009	EI - LI	Simply Sonatinas Book 1, 2	1993	LE - LI
Finger Paintings Book 1, 2, 3	2000	EE - LE	The Best of Dennis Alexander, Book 1, 2	1995	E - I
Five-Star Solos Book 1, 2, 3, 4, 5, 6	1-3: 2015 4-6: 2016	EE - LI	The Magic of Music Book 1, 2, 3	1998	LE - LI
Folk Song Silhouettes	1991	I	Toccatas Book 1, 2	2020	EI - LI
Just for You Book 1, 2, 3, 4	2004	E - LI	With These Hands	1999	EA